순창의 지난 과거를 느껴보다

이달 말까지 옥천골미술관서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공모전 전시회 열려

순창의 과거를 만나볼 기회인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공모전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옥천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순창군이 지난 2월 '당신의 기록, 순창의 기억이 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순창 역사기록 찾기' 민간기록물 공모전 입상작 등 100여 점이 전시된다.

군은 옛 모습을 기억하고 이 기록을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열었다. 그 결과 59명이 222건의 기록물을 접수해, 1873년 '삼인대 입안절목', 1874년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 1892년 5세 6효 정려교지 등의 조선시대 기록물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많은 기록물이 쏟아졌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록물은 단연코 1873년 '삼인대 입안절목'을 포함한 삼인대 관련 고문서들이다.

이 기록물은 '삼인문화 선양회' 회장을 지낸 양상화 선생(80)의 개인 기록물들로, 1818년부터 1906년에 걸쳐 삼인대 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등장, 상서, 관문, 첩정, 입안절목 등이다.

삼인대(三印臺)는 1515년에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그리고 무안현감 유옥이 중종의 폐비 신씨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관직을 표시하는 직인을 소나무 가지에 걸었던 곳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순창 강천사 남쪽에 삼인대 비와 비각이 설치돼 있으며, 지난 1973년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삼인대 기록물과 더불어 일제강점 말기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사진 50여점도 관람객들로 하여금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이 잠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제10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장수군과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주최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열린다.

"전국 소리꾼들, 장수로 모두 모여라!"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22일 개최

장수군은 제10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가 장수군과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주최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장수 한누리 전당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대회는 명창부, 일반부, 논개부, 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초등논개부로 나뉘어 치러진다. 명창부 대상은 국회의장상과 상금 500만원이 주어지며, 일반부 대상은 문화재청장상과 상금 200만원, 고등부 대상은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초·중등부 대상은 전라북도교육감상과 상금 50만원, 7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오늘까지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http://cafe.daum.net/jangsugukak)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jangsugukak@daum.net) 또는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전북 장수군 번암면 대성방길 68)에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금당 유영애 이사장은 "의암 주논개님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고,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판소리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며 "정정당당한 대회를 통해 뛰어난 소리꾼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새일센터, 18개 여성친화일촌 기업 ·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윤애)는 19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친화일촌 기업 및 기관과의 상호업무교류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메이커팩토리, 전주시장애인일자리센터, 전주수제초코파이, ㈜두드림, 사)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전북지회,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광역자활센터 등 18개 기업 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여기업은 협약서를 교환함으로써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향후 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여성인력의 우선 연계는 물론 새일여성인턴, 기업환경개선,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날 전주고용센터에서 고용정보 및 지원정책 설명회와 함께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안내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및 경력단절여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 여성인력 육성을 통해 기업체와 원활한 구인·구직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친화일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전라북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댄스 뮤지컬

오늘 고창문화의전당서 '비바츠 태권발레' 공연

고창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발레와 태권도가 융합해 환상의 무대를 꾸미는 'LED 비바츠 태권발레'를 선보인다.

태권발레는 태권도와 서양의 발레 그리고 디지털 강국의 면모를 보여 주는 '아트테크'를 접목한 새로운 콘셉트의 발레 뮤지컬이다.

특히 테디베어 곰 캐릭터들이 태권도와 발레를 배워서 환경을 파괴하는 악당들을 물리쳐 지구를 지켜낸다는 내용으로 경쟁과 협력, 사랑과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배움의 온 가족이 함께하는 댄스 뮤지컬이다.

공연예매는 고창문화의전당 현장예매를 통해 가능하며, 관람료는 일반 3000원, 학생 1500원이다.

앞서 고창문화의전당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LED 비바츠 태권발레'를 시작으로, 국립합창단의 흥겨운 합창여행 '영화음악여행(9월17일)', 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여행스케치와 동물원의 포크콘서트 '동물원에 여행가자(10월24일)',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송아지를 인형극으로 만든 '내 친구 송아지(11월28일)' 등으로 군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채로운 공연의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